

## 정주영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 영문 번역서 출간 -4월 23일(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출판기념회-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의 영문 번역서 '*Born of This Land: My Life Story*'가 출간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 국제회의인 '아산 플래넘 2019'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故정주영 회장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낸 과정과 함께 88 서울올림픽, 남북한 경험,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등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맡았던 역할을 스스로 적은 기록이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써, 수많은 좌절과 도전에 직면했던 기업인으로서,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일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서문에서 "이 책은 아버님이 해방과 6.25 전쟁의 혼란을 겪은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에서 기업과 나라를 일으키고자 벌이신 투쟁의 기록"이라고 밝혔다.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캐런 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 전 편집인, 폴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 이흥구 전 국무총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서평과 회고담을 나눌 예정이다.